

# ‘대덕연구단지 40주년 어디로 가야하나’ 패널 토론 자료

2013.10.29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     신 용 현  
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문위원

## 1. 대덕연구단지의 현황

- 대덕연구단지의 비전은 ‘글로벌 연구개발 수월성’을 기반으로 한 ‘세계적인 연구 개발 클러스터’라는데 이의가 없을 것임
  
- 대덕연구단지는 이미 ‘세계적인 연구 개발 클러스터’로 발전할 수 있는 훌륭한 제반 여건들을 갖추고 있음.
  - 융합연구를 하기에 최적의 여러 분야의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음
  - 정부출연연구소, 기업연구소외에 대학과 과학관, 컨벤션 센터를 이미 갖추고 있어 교육, 연구, 과학문화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
  - 곧 기초과학연구원이 입주하고 중이온 가속기라는 거대 연구시설을 지근 거리에 갖추게 됨.
  - 생활 환경도 우수한 편이며, 우리나라 대표 연구단지로서의 브랜드 가치 가지고 있음.
  
- 40년 동안 투자가 되어 hardware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, ‘세계적인 연구 개발 클러스터’명성을 얻지 못했고, 국가혁신 주체로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도 퇴색하고 있는 상황임.
  
- 시작이 국가의 대표 연구단지이다보니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역할도 활발하지 못했음.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시와의 협력관계가 신생 지역중심 연구단지에 비해 부족함

## 2. 대덕 연구단지가 글로벌 혁신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 조건

### 1) 수월성 있는 연구역량 확보 및 성과 도출 분야

#### (1) 우수 인재 유입 환경 조성

- 우수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  
육아시설, 교육시설, 문화시설, 은퇴 후 정주 시설 등 생활 여건 향상.
- 일자리를 얻기 쉽고 이동이 쉬운 환경 조성
  - 예전에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듯이, 우수한 인력들이 대덕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
  - 일자리 공급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외에 유연한 일자리 정책도 필요. 지금은 기관별로 인력 운용이 경직되어 있어.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지만 일자리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태임
  - 연구단지 차원의 인력 풀 운영등을 검토
  - 인력 정보 제공, 인력교류 프로그램, 인턴 프로그램 확대
  -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와 연관된 창업 뿐 아니라 연구개발지원과 관련된 창업 프로그램도 영
- 탐방 및 체험 프로그램, 과학기술 학습 지원 프로그램, 인턴 프로그램등을 통해 연구단지에 대한 문턱 낮춤

#### (2)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인재 교류 및 유입 활성화

- 대덕 연구단지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약점이 있음
  - 외국계 연구소나 글로벌 기업 연구소,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입주로 얻을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이나 국제적 브랜드 가치 향상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
-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 노력 필요
  - 외국인 정주 시설, 외국인 정착 도우미 등 맞춤형 지원 노력 필요
  - KAIST나 연구기관에 와 있는 유학생이나 연수생 중 우수한 인재들이

- 남아 일할 수 있는 품토 조성 필요
- 외국 국적의 연구원 충원

- 대덕연구단지에서 경력을 쌓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연구자와 지속적으로 협력 네트워크 유지 필요
- 가칭 대덕동문네트워크 프로그램 등

### (3) 소통과 교류 활성화

- 대덕연구단지는 물리적으로는 이웃해 있지만 단지 내에서의 사람 혹은 기관 간의 실질적 교류프로그램이 매우 드문 편
-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아이디어 실현 방법이 구체화 되면 이를 통해 새로운 교류가 시작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- MOU 교환 등을 통한 기관 간의 벽 허물기 같은 공식적인 프로그램도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자연스럽게 편한 만남의 기회도 늘리는 것이 중요함

- 연구단지의 통합 신분증을 만들어 식당이나 커피숍 홍보 전시실 운동 시설 등은 서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한 일

- 연구단지 차원에서 조찬모임, 독서교실, 취미 동아리 모임, 학부모 교실 등 다양한 교류 활동 유도 - 새로 건립될 사이언스 문화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

- KAIST나 충대에 젊은 연구자 혹은 과학기술에 뜻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 제공.
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에서 여러 모임을 주선 혹은 후원하면 좋을 듯

### (4) 연구개발 특구로서의 연구관리 및 행정 제도 선진화

- 자유무역지구처럼 특구에서는 연구 관리나 행정 처리 제도를 완화

-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과제 제안이나 사업제안, 실험적인 프로그램이

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

- 선진화 된 연구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투자

## 2) 연구 성과 파급성 확대

### (1)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 축적과 역량 확보를 우선하는 분위기 조성

-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우선임  
기간에 쫓겨 실적은 성과를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악영향
- 기술 수요나 현장 요구사항에 관심을 갖고, 연구실과 기술 적용 현장과 교류를 확대

### (2) 경제적 파급 효과 이외의 분야에서의 영향력 확대 노력 필요

-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성과의 사회적 파급효과(국가 위상제고, 국민 편의제공, 생활 편의성 향상, 사회문제 해결)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
- 출연연구기관은 해당 분야 과학기술 think tank로서의 활동 강화 노력  
- 과학기술문제에 대해 전문가 인터뷰는 대덕연구단지에서 나오도록

### (3)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

-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청권의 지역혁신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 있음
- 지자체와의 협력 프로그램 확대 필요
-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outreach 활동 증대 (과학탐구교실, 연구소 탐방 프로그램 등)